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388호 1판 (음력 11월 11일) 2016년 12월 9일 금요일

박근혜 탄핵 … 대한민국 '운명의 날'

8일 국회 본회의의 모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처리된다. 오른쪽은 지난 달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오늘 오후 3시 본회의 표결 … 野,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

새누리 친박, 막판 부결에 총력 … 가결이든 부결이든 '대격랑'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 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관련기사 2·3·4·6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함으로써 표결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탄핵안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국회법 130조에 따른 절차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 표결을 실시한다. 탄핵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탄핵안은 8일 오후 2시 45분에 보고된 만큼 24시간 후인 9일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할 수 있어 오후 3시 본회의를 시작한다.

8일 현재까지는 탄핵안이 가결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막판까지 탄핵 부결을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어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내에 이뤄져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그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게 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탄핵안이 가결돼도 박 대통령 하야와 내각 총사퇴 요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은 중도 사퇴 없이 법에 따라 탄핵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 표결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정치권은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혼돈과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특히, 내년 연말이 아닌 4월~6월의 조기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충돌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탄핵 결과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가 격돌하면서 분당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의원직 전원 사퇴를 결의한 상태여서 야당 의원 총사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반영하듯,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찬성표와 반대표 단속에 총력전에 나서는 등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야권은 의원직 총사퇴 결의로 배수진을 치고 국회 촛불집회와 철야농성 등으로 탄핵안 가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탄핵안의 캐스팅 보트를 쥔 새누리당 비주류는 막판 찬성표가 이탈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박 대통령 탄핵 저지에 나선 친박 주류는 반대표 결집을 위한 물밑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박 대통령에게 9일 표결 전까지는 4월 자진 사퇴 의사를 육성으로 밝힐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청와대 참모들에게 "담담하게 표결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수서발 고속철도 오늘 개통

〈SRT〉

광주 송정~서울 강남 97분

호남선 하루 40회 왕복 운행

요금은 KTX 보다 10% 저렴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9일 개통, 운행에 들어가면서 송정(광주)→수서(서울 강남) 구간을 90여분 만에 달릴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8면〉

8일 국토교통부와 SRT운영사인 (주)SR에 따르면 이날 개통식을 가진 호남선(목포~수서) SRT는 하루 40회 왕복한다.

상행의 경우 광주 송정역에서 첫차는 새벽 5시20분 출발, 목적지인 수서역에 오전 7시3분 도착한다. 목포역에서는 오전 6시30분 첫차가 출발하며 목적지 수서역 도착 시각은 8시48분이다. 막차는 목포역에서 밤 10시30분 출발해 나주역(밤 10시57분), 송정역(밤 11시9분)을 거쳐 이튿날 새벽 0시53분 수서역에 도착한다. 호남선 하행 첫차는 새벽 5시10분 수서역을 출발한다. 이 열차는 광주 송정역(오전 6시47분), 나주역(오전 6시58분)을 지나 목포역에 7시24분 도착한다. 수서역에서 밤 11시 출발하는 막차는 목적지 송정역에 다음날 새벽 0시41분 도착한다.

기존 KTX가 송정역을 출발해 서울·용산역을 도착지로 하는 데 비해 SRT는 강남 수서역이 도착지여서 국내 유수 대기업 본사 비즈니스나 의료시설, 쇼핑시설 이용객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운수업계에서는 광주(광천)와 강남터미널을 오가는 고속버스와 KTX는 승객 감소를 불러오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

SRT 요금은 송정~수서 구간 4만700원으로 송정~용산 KTX 요금(4만6800원)보다 13%가량 저렴하다. 목포~수서 구간도 4만6500원으로 KTX보다 10% 가량 낮다.

호남선 SRT는 최고 속도 시속 300㎞로 송정~수서역을 97분에 주파하도록 설계됐다. 좌석은 410석(특실 33·일반실 377석), 하루평균 총 1만6400석 규모다. 광주~수서(289.6㎞) 구간은 하루 11편, 목포~수서(356.4㎞) 구간은 9편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00년 뒤 인구 절반으로 준다

통계청, 2115년 2582만 명 예측

50년 뒤엔 고령인구가 전체 46%

앞으로 100년 뒤인 2115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582만명 정도로 예측됐다. 2500만명은 현재 북한의 인구 규모다.

통계청은 8일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100년(2115년) 뒤 인구를 추계했다.

더욱이 206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6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6.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중위 기준 42.5%보다 3.7%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따라서 이미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은 물론, 광주의 노령화가 심각해져 각종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065년 0~14세 유소년 인구는 270만명으로 지난해(703만명)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유소년 인구 비중도 중위 기준 9.6%보다 낮은 7.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추계는 국가의 연금 및 재정정책 등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필요한 장래 인구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다.

각종 연기금과 건강보험, 국가 재정은 물론 주택경기나 에너지·전력 계획 등도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한다.

통계청은 출산력과 국제순이동은 2065년 추계치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고 사망력은 50년 추계(2015~2065년)와 동일한 모형으로 예측했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내 수능 점수로 어느 대학 갈까 ▶7면

화순 적벽 국가 '명승' 된다 ▶16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 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